



# 독금법 적용제외제도 세계 각지에서 적절히 기능

## 일본선주협회, 독금법관련 EC에 의견서 제출

일본선주협회는 10월31일 EU경쟁법으로부터의 포괄적용 제외제도를 인정해 온 유럽 이사회 규칙 4056/86의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EC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Issues Paper의 논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선주협회는 또 선사간 협정에 대한 독금법 적용제외제도는 세계 각지에서 지극히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 만큼, 유럽항로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최저선으로서 ELAA 신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2006년 9월25일 정기선동맹에 대해서 EU경쟁법으로부터의 포괄적용 제외제도를 인정해 온 유럽 이사회 규칙 4056/86을 2년 후에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9월29일에는 규칙 폐지후 선사간의 정보교환 수위 등(ELAA가 2006년 6월에 제출한 제안)에 관한 EC의 생각을 정리한 'Issues Paper'를 발표한 바 있다.

동 Paper에 대해서는, 10월31일을 기한으로 이 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선주협회는 10월31일 EC측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ELAA(European Liner Affairs Association)는 EU경쟁법적용 제외제도 재검토를 계기로 유럽 발착의 정기항로 취항선사가 조직한 선사협의체로서 현재 21개 선사가 가입해 있으며, 본부는 브뤼셀에 있다.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EU경쟁법의 적용에 대해 향후 발행되는 구주위원회의 가이드 라인과 관련하여 일본선주협회가 제출한 의견서는 다음과 같다.

### ▷ Issues Paper

일본선주협회는 Issues Paper의 논조, 즉 정기선시장이 담합 체질에 있다는 견해는 ELAA 제안의 분석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잘못이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해운업계의 모든 관계자는 정기선시장이 지극히 경쟁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선사는 지금까지 법령을 준수해 오고 있어 향후도 이것을 계속해 갈 생각이다.

### ▷ ELAA 신제안

협회는 선사간 협정에 대한 독금법 적용제외제도는 세계 각지에서 지극히 적절히 기능하고 있으며,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한편, 유럽항로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최저선으로서 ELAA 신제안을 지지한다. 동제안은 유럽에 있어서의 향후의 체제로서 실행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서플라이체인(supply-chain)에 관련되는 모든 관계자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시황정보의 교환제도는 업계의 운영에 불가결한 정보를 공급해 세계무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기적절한 정보없이 사업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 선사 및 화주에게의 정확한 수급예측의 제공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항로에 관련된 정보를 활용해야 하고, 그리고 무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수요에 응한 공급(스페이스)을 확보하려면 항로상황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의는 선사와 화주의 쌍방에 있어서 공통의 이익

을 가져오는 것이다.

## ▷ ELAA에 의한 고객 조사

일본선주협회는 ELAA가 일련의 고객에 대해 의식조사에 주목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ELAA 신제안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어 이 점에 관해 구주위원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

## ▷ 결론

ELAA는 신제안의 경쟁촉진 효과를 분명히 하고 있어 어떠한 반경쟁적 효과에 대해서도 적절한 예방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구주위원회에 대해 절대적인 최종선으로서 ELAA 신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향후 발표하는 가이드 라인에 동제안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관례와 법적 확실성, 그리고 세계무역 전체에 있어서의 이익에 필적하는 것이다.

# 일본선협과 선원조합, 일본인 선기장문제 협의

## 노사 양측 선원·선적문제 노사협의회 개최

일본선주협회와 전일본선원조합은 10월25일 제9회 '선원·선적문제 노사 협의회'를 갖고, 일본인 선·기장 배송요건 철폐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제7회 협의회에서 정리한 '외항 일본인선원(해기사)의 확보·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스킴'에 의거하여 노사정 3자로 진행하고 있는 외항 일본인 해기사 확보 및 육성방안에 관한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 및 진척 상황을 협의했다.

아울러, 새로운 스킴에 있어서 육성요원의 노동조건, 외항 일본선적의 일본인 선장 및 기관장 배송요건의 철폐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스킴에 대해 내년부터 실시를 목표로 올해 6월부터 노사정 3자로 구성된 '외항 일본인선원 확보 및 육성에 관한 신스킴 도입을 위한 검토 조정회의' 및 동 작업반회의에 대해 실무적·구체적인 검토가 개시되어 지금까지 신스킴의 구성과 역할, 통괄조직과 실시단

체, 도입 연수 스케줄과 커리큘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온 취지보고가 있었으며, 이를 승인했다.

또 육성요원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는 급여, 노동시간 및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선협·조합측 작업위원장의 검토결과가 보고되어 이를 승인했다.

이와함께 일본인 선장과 기관장 배송요건 철폐의 적용 대상선박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13일의 노사합의 문서의 취지, 7월28일의 교통정책심의회 해사 분과회의에 있어서의 국토 교통성 견해를 근거로 해서 개정규정의 적용까지 기존선박 적용을 별도 노사확인하는 것으로 했다.

신스킴과 관련되는 비용문제에 관해, 조합과 국제선원노무협회에서 관리하는 '고용안정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제공한다는 고용안정기금 관리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과 이 경우 비용부담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